

아차산 능선 전망길

탁 트인 전망 속에서 고구려인들의 기상을 느끼다



걷는구간	아차산 해맞이광장 → 아차산 3보루 → 아차산 4보루
------	----------------------------------

걷는거리	1.2km
------	-------

소요시간	30분
------	-----

추천시기	봄·여름·가을
------	---------

난이도	★ 초급코스
-----	--------



아차산은 해발 300m 정도의 낮은 산이지만 명성이 자자하다. 첫째, 서울의 가장 동쪽에 있다 보니 새해에 아름다운 일출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둘째, 남한에서 고구려의 유적과 유물이 가장 많이 발견되고 온달장군과 평강공주의 전설이 내려오는 곳으로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다. 셋째, 아차산 능선에서 내려다보이는 굽이치는 한강의 물결이 장관이다. 넷째, 오랜 세월 아차산을 지켜온 아름답고 기품 있는 소나무 숲이 정말 일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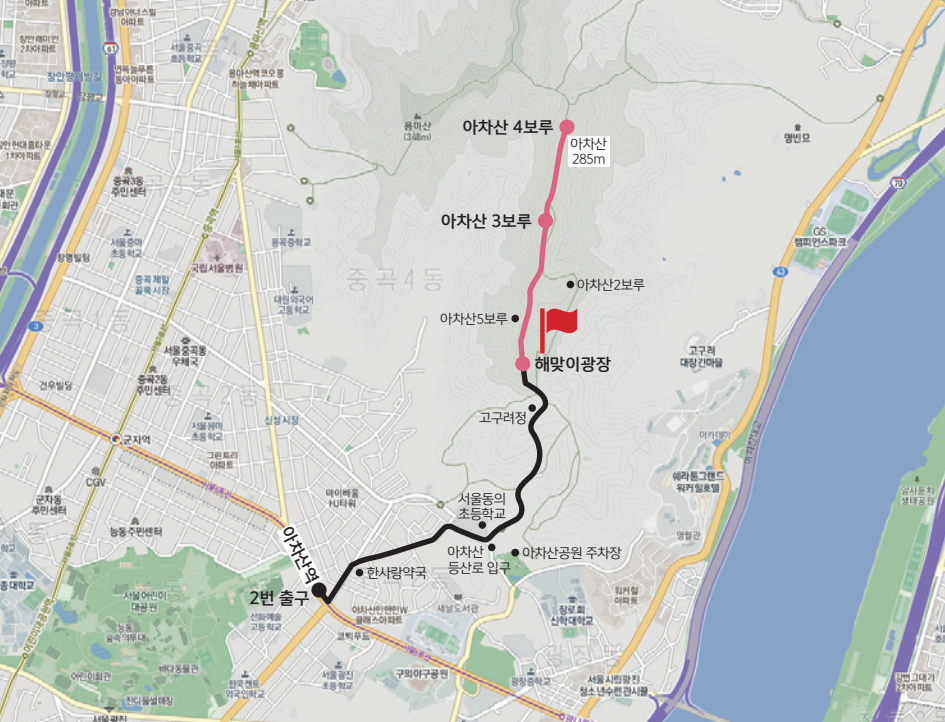


‘보루(堡壘)’는 성(城)보다 소규모 시설로 만든 방어요새를 말한다. 고구려는 아차산을 중심으로 웅마산, 망우산, 한강변 등 20여 곳에 보루를 쌓고 병력을 상주시켜 백제의 북상을 막고 한강의 물길을 통제하여 서울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했다.

아차산은 계절마다 그리고 여러 갈래의 길마다 제각각 색다른 느낌을 전해주는데, 그중에서도 해맞이광장에서 정상까지 이어지는 능선은 고구려 때 만들어진 보루 위를 걸으며 도심을 가로지르는 한강의 물줄기를 마주하게 된다. 마치 한강 위를 걷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가깝고도 선명하다. 도도하게 흐르는 한강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 옛날 한반도를 넘어 만주 벌판을 호령했던 고구려인들의 기상이 온 몸으로 전해진다.

전망이 가장 멋진 장소는 정상에 있는 4보루보다는 3보루 주변과 해맞이광장과 3보루 사이의 전망대이다. 아차산의 보루 중 가장 널찍한 3보루에서 바라보는 구리시와 강동대교 쪽의 한강 물줄기 경관은 엄지를 척 올릴 만큼 정말 아름답다.





☞ 지하철 5호선 아차산역 2번 출구로 나와 직진. 아차산역 사거리에서 모리참치를 끼고 좌회전해서 직진. 케익하우스 몽마와 한사랑약국 사이로 들어가서 동의초등학교까지 직진. 나무 데크로 만든 길을 따라가면 아차산 입구가 나온다. (역에서 아차산 입구까지 약 15분 소요)

☎ 02-450-7792 광진구청 공원녹지과

① 이용시간 제한 없음

식수대나 매점 입구에 있음
등산로 입구에 화장실 있음
아차산공원 주차장 이용
유모차·휠체어 이용 불가는
애견 출입 자제(해맞이광장까지 경사 심함)



해맞이광장을 지나 아차산 2보루로 가는 길에는 아차산을 대표하는 명품 소나무 1호와 2호가 서 있다.

